

산림청,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7월부터 시범운영

- 산림생명자원 검색부터 분양 신청까지 온라인 원스톱 지원 -

산림청(청장 박은식)은 산림생명자원 분야의 정보접근 및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‘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’을 7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시범운영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·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 운영 결과를 반영해 기능을 보완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(누리집 주소: open.nature.go.kr)은 국민, 연구기관, 대학, 기업 등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정보를 검색하고 시험·연구 목적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.

그동안 산림생명자원 분양 희망자는 공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으나, 앞으로는 시스템을 이용해 자원을 검색한 후 분양을 신청하고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“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생명자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.”며, “시범운영 후 내년 정식 운영을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산림보호국	책임자	과 장	박영환 (042-481-4240)
	산림환경보호과	담당자	주무관	박지환 (042-481-8807)